

Oct.  
In  
Kandal

# Phlieng

갈팡질팡 깐달팀의 10월이야기  
시작하라. 다시 또다시 시작하라.



## Contents

- Atti week · 002
- YDP 활동 · 004
- 우리들의 진짜 여선생 피름 하니 · 006
- 아마추어' s 사진교실 · 007
- CDP활동 · 008
- 피에름의 일기를 훑쳐보다 통통 · 011
- 경조사 · 012
- 잊지 못할 그녀의 생일 소망 · 013
- End poverty Campaign · 015
- 코니남, 취미는 친절이라 하네 통통 · 019
- 뚜슬랭 박물관 · 021
- 먹고 마시고 사랑하라 · 023
- 늘 먹던 걸로 주세요 쌤 · 024
- 이야기 모임, Jam! · 025
- 하얀 똥똥거탑 쌤 · 026
- 손님, 이걸 얼굴이예요 비비 · 027
- 사 사 사 · 029
- 그 때 다 하지 못한 이야기들 · 035
- 그리고 남은 이야기 · 036



# October

Sun	Mon	The	Wed	Thu	Fri	Sat
			1 End poverty campaign 사진조사 김홍 생일파티	2 End poverty campaign 준비	3	4
5	6 Atti week 흥보 English Class & Club 시작!	7 Sports club (농구) 한국어 Class & Club시작!	8 환경 Club English  Atti week	9 Caritas 대청소 한국어	10 Korean&Khmer Cooking party	11 뚜슬렝 박물관 프놈펜 구경
12 End poverty Campaign 회의	13 Hydroponic 수업 & 실습 English	14 CDP 활동 한국어	15 휴일	16 CDP 활동 한국어	17 CDP 활동 End poverty campaign 시작	18
19 동동생일!	20 CDP 활동 English	21 CDP 활동 한국어	22 CDP 활동 English	23 휴일	24 CDP 활동 사진 수업 End poverty Campaign 2주차	25
26 우리집 대청소	27 CDP 활동 English	28 CDP 활동 한국어	26 새로운 시장 발견	30 CDP 활동 한국어	31 카리타스 스태프 소폰 결혼	

# | Atti week |

매달 첫째 주에 카리타스 센터에서 스포츠, 환경, 평화클럽, 쿠킹파티 등을 진행





▲ 쿠킹파티 조모롱과 함께

### · Atti week 주요일정

	월	화	수	목	금
오후1	스텝과의 미팅	스포츠클럽	환경클럽		쿠킹파티
오후2	영어	한국어	영어	한국어	

• CDP 스텝 썸남과 YDP 스텝 탄과 미팅을 했고 크게는 레스토랑사업, 수업 방향, YDP 일정조정에 관한 이야기를 했다. 11기부터 있었던 레스토랑사업은 아직 크게 진행된 바가 없고 11월이나 12월쯤 스텝들끼리 레스토랑 사업계획서를 완성하면 그때부터 우리가 함께 인테리어 같은 부분을 진행하기로 했다.

• 스포츠클럽은 클럽의 방식에 따라 농구를 가르치는 방식보다는 함께 즐기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생각보다 유스들의 참여도가 높았지만, 인원이 많아서 신경을 쓰지 못하는 부분도 있어서 아쉬웠다. 앞으로 농구 이외에도 다른 다양한 종목을 진행할 계획이다.

• 환경클럽은 동호 팀원이 맡아서 클럽과 클래스의 차이, 클럽의 취지, 환경 관련 영상 2편, 클럽 명 짓기와 클럽 포스터 만들기 등으로 진행했다. 유스들과 아띠들 외에도 카리타스 미술 선생님도 함께 참여해서 더 풍성한 클럽이 되었고 다음 클럽장은 유스가 맡기로 해서 더욱 기대된다.

• 클럽을 진행할 때 소통이 힘들 수도 있었지만 서로 도와서 서로에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좋았다.

• 쿠킹파티는 우리가 주축이 되어 한국 음식은 비빔국수, 캄보디아음식은 미차(볶음면)를 하기로 했다. 캄보디아 사람들이 좋아하는 새콤한 맛과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매콤한 맛의 조화인 비빔국수와 대중적인 음식인 미차가 좋을 것 같아서 메뉴를 선정하였고 서로의 음식을 나누어 먹으며 서로의 문화를 나눌 수 있어서 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 처음에는 주방에서 같이 요리 하면서 요리법도 나누려고 했으나 상황이 어려워 미차는 카리타스 식당에서, 비빔 국수는 아띠하우스에서 따로따로 만들게 되어서 아쉬움을 남겼다.

• 김치전을 만들 때 나왔던 역할 분담에 관한 생각을 이번엔 비빔국수를 만들 때 잊지 않고 다섯 명이 역할을 잘 분배해서 진행할 수 있어서 요리 시간이 즐겁고 좋았다.

• 유스들, 또 마을 사람들과 함께 새로운 것들을 접하고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전반적인 활동들을 마을 아이들과 함께할 수 없어 아쉬웠다.

# | YDP활동 |

카리타스 센터에서 Youth 및 마을 아이들을 대상으로 매주 월, 수, 목은 영어 화, 목은 한국어 수업 시간을 진행.



## 꼬마반 한국어/ 영어수업

• ‘아이들에게 한국어가 필요할까?’ 라는 고민으로 수업을 시작했고, 아이들과 논다는 생각으로 공부한다는 느낌보다는 한국어에 친숙해지고 우리와 관계를 맺는 것에 목표를 두고 수업을 진행했다. 30분은 숫자 읽는 법, 가족 호칭 배우기, 동요 배우기, 빙고 게임하기 등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하였고 30분은 돌리, 안녕 자두야? 같은 애니메이션 시청하였다. 영어 수업은 실제로 아이들에게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색깔, 숫자, 가족 호칭 등 필수 단어 위주로 공부하고 나머지 시간은 한국어 수업과 마찬가지로 애니메이션을 시청했다.

• 그 동안의 수업을 통해 얻은 것은 아이들과 관계 그에 인한 기쁨도 있지만, 남들은 모르는 실패와 다크서클도 있었다.



**실패기 1. 밖으로 나가버리고~** : 아이들과 더 친해지기 위해 일주일에 두 번씩 야외에서 얼음 땡, 수건 돌리기, 우리 집에 왜 왔니 등 놀이를 진행했으나 아이들이 유스클럽을 방해하고 갑자기 10명이 화장실을 가는 등 통제가 어려웠고 무엇보다 안전문제가 심각하여 지금은 야외수업을 중단한 상태이다.

**실패기 2.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 스태프 탄의 부탁으로 아이들의 출석을 표시하려고 스태프 피움의 도움으로 출석표를 완성했으나 아이들과의 소통 문제로 출석을 부르지 못했다. 11월에는 아이들의 사진으로 출석부를 만들어 다시 출석체크를 시도할 예정이다.



**실패기 3. 10분 천하** : 2-5세의 미취학 아동들이 언니, 오빠들을 따라 수업에 참여하는 데 소리를 지르거나 뛰어다니는 등 수업을 방해했다. 그래서 처음엔 보조교사 방식으로 한 명이 진행을 하고 다른 한 명이 아이들을 진정(?)시키려고 했으나 통제가 어려워서 실패했다. 두 번째로는 분반을 생각했는데 처음에는 분반을 하는 행위가 아이들에게 어떻게 보일지에 대한 걱정, 또 미취학 아동 반을 맡아야 하는 팀원의 체력적인 문제 등을 고민하다가 일단 시도해 보기로 했다. 그래서 하루는 태운 팀원이 미취학 아동 5명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고 경미, 동효 팀원이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10분 만에 미취학 아동이 한 명씩 들어오더니 제일 마지막으로 태운 팀원이 텀레텀레 들어왔다. 그 뒤로도 한 번 더 시도했으나 또다시 미취학 아동들이 태운 팀원을 뿌리치고 교실로 들어오더니 마지막으로 태운 팀원이 들어왔다.



**실패기 4. 크리슈나, 누구냐 넌?** : 영어수업 때 아이들의 흥미를 위해 시청했던 크리슈나가 대 흥행을 해버렸다(?). 아이들이 카리타스 들어오자마자 크리슈나를 외치고 수업 내내 크리슈나를 틀어달라고 하고 크리슈나를 보지 않는 한국어 수업에도 크리슈나를 보여 달라고 하는 아이들 때문에 수업 내내 진정시키느라 너무 힘들었다. 하지만 아이들이 크리슈나를 보는 동안에는 최고의 집중력을 보여서 11월에는 크리슈나를 이용해 수업을 진행해 보기로 했다.

• 이러한 실패에도 아이들 16명 정도가 빠지지 않고 출석을 하는 등 수업에 대단한 흥미를 보이고 있고 미취학 아동들도 수업시간을 따분하게 보내지 않도록 계속해서 다른 대안을 생각해보기로 했다.

## Youth 한국어 / 영어 클럽

**한국어클럽** : Youth 수업은 한국어만을 알려주는 시간이 아닌 서로의 언어를 알려주며 가르치고 배우는 재미를 알 수 있는 시간을 가지기로 하였다.

덕분에 서로가 알고 싶어하는 단어, 문장표현도 잘 알려줄 수 있어 더욱 편안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얻어낼 수 있었던 것 같다. 지금은 인사말, 신체 부위, 동물, 숫자 등의 콘텐츠를 배우고 있다.

**영어클럽** : 아띠가 하는 일방적인 수업이 아니라, 함께 영어 공부를 하며 실력을 향상하자는 의미에서 ‘클럽’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이렇게 수업 방식을 바꾸면서 클럽을 진행하는 방법 및 커리큘럼에 대한 고민들이 많이 생겼고, 그 때문에 2번에 걸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첫 번째 설문조사** 영어 클럽 첫 시간에 youth들의 영어 실력을 파악한 후 수업 계획을 구체적으로 짜기로 했으나, 학생들의 수준차가 너무 확연하여 계획을 짜기 힘들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띠들 사이에서 분반에 대한 의견을 논의했고, 결국 학생들에게 직접 묻기로 하였다. 그 결과 학생들이 원치 않아 분반 하지 않았다.

**두 번째 설문조사** 그러나 여전히 학생들의 수준 차가 있어 진행이 힘들었고, 그 때문에 학생들의 전반적인 수준과 원하는 주제 및 방향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설문조사 결과, 회화 위주의 job interview 준비, 팝송을 통한 단어 등에 대한 커리큘럼을 재구성하기로 하였다.



### | 고민 & 시도 |

- 첫 번째 시간에는 일반 교실처럼 학생들이 줄을 맞추어 앉았다. 그러나 집중도가 떨어지고 질문을 쉽게 할 수 없는 분위기 때문에 방식을 바꾸어 동그랗게 앉기 시작했다. 앉는 방식을 바꾼 이후 학생들이 모르는 내용이 생겼을 때 서로 나서서 가르쳐주게 되는 등 참여도가 높아져 진행이 원활해졌다.

- 또한, 아띠들의 크메르어 실력이 능숙하지 않아 영어 단어를 자세히 설명하기 위해서는 다시 영어로 설명해 줄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학생들이 단어를 이해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었다. 때문에 중요 단어들은 현지어로 직접 써주고, 간단한 설명은 현지어로 준비하는 등의 여러 시도를 하고 있다.

# 우리들의 진짜 여선생 피룸

9월에는 없었지만 10월부터는 캄보디아에서 사용하는 언어인 크메르어를 배울 수 있는 수업시간이 생겼다.

하루에 30분, 아침 8시에서 8시 반까지, 30분 간의 수업이다. 우리는 30분의 수업에서 어떤 것을 배울 수 있을까라는 회의가 들기도 하고 별 기대를 하지 않았다. 하지만 우리는 수업을 받으면서 감동받았다. 우리가 알아야 할 캄보디아 문화가 많다는 것을 깨닫고, 외국에도 우리가 모르는 예의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우리는 CDP활동 지역에서 할 자기 소개, 필요한 단어들 또, 식당에서 주문할 수 있는 음식들, 시장에서 흥정하는 법 등을 배웠고, 배운

내용이 정말 실생활에 필요한 내용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배우면서 크메르어 실력이 쑥쑥 자랐다. 진짜 온전히 우리들을 위한 수업이라 단지 회화 30분 배우는 시간이 아니라 정말 매력적인 시간임을 우리 모두가 느끼고 있다.

8시 30분이면 다른 일정 때문에 수업을 마치고 헤어져야 하는 우리는 아쉬움이 남곤 한다. 하지만 앞으로도 수업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수업을 기대해본다.

Thank you, 피룸! 어쨌든, 네끄루!





# | 아마추어's 사진교실 |

카리타스 스태프들의 요청으로 태윤 팀원이 사진에 관한 기본적인 수업을 함.



프레젠테이션 방식으로 카메라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 노출, 구도, 초점 등의 이론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진행함. 수업이 끝난 뒤 스태프들이 추가 수업을 요청할 정도로 열성을 다했던 수업이었다.

## 록끄루(남선생) 태윤의 한마디

영어로 준비하는 데 너무 어렵고 힘들어서 '수업이 잘될까?' 걱정이 되었는데 경미가 많이 도와줘서 마음이 편해졌고, 수업을 듣는 스태프들도 진짜 배우고 싶어 하는 모습이 보여서 열의가 많이 생겼다.

## 보조 경미의 한마디

태윤이가 오랫동안 준비했던 것을 알기에, 열정적인 스템들을 보며 내가 다 뿌듯했던 날이었다.





1 땅 고르기를 마친 뒤, 간볼아저씨, 실라, 환, 어덤 그리고 마을아이들과 함께

## | CDP활동 |

Community Development Program(마을 공동체 개발 프로그램)의 약자로 주로 농업과 관련된 일을 진행함.

- 카리타스에서는 지속가능한 마을 공동체를 위해 단순한 금전적 도움이 아니라 마을 농부님이 스스로 농작 일을 일궈 가실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한다.
- 매주 둘째 주부터 넷째 주까지 그 농부님의 일손을 돕는데 주로 수경재배, 버섯농가 만들기, 닭장 짓기 등을 한다. 10월은 프라이요웅 마을의 까볼 농부님과 함께 수경재배(hydroponic) 작업을 했다.
  - (1) 수경재배에 관한 CDP 스태프 Mr. Meng 의 수업 및 실습
    - 수업이 주로 크메리어로 진행되어 이해하는 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었지만 유스들과 함께 공부하고 일을 할 수 있어서 카리타스의 일부가 된 느낌이 들었고 유스들과도 더 친하게 지내는 계기가 되었음
    - 실습할 때는 우리가 무언가를 해주는 게 아니라 유스들과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시간이어서 더 의미 있었음



2



3



4

1 간불아저씨, 실라, 환, 어덤 그리고 마을아이들과 함께! 2 불 지퍼서 영감 태우기. 타라는 불은 안 타고 애만 탐. 3 모종판에 섞

은 비료 담기. 4 풀이나 꽃을 뽑는 게 아니라 나무를 뽑는 이 나리의 땅 고르기.

(2) 회의

- CDP 스태프 Mr. Meng 의 수업에서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회의
- 크메르어로 진행된 수업을 아직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한 채로 회의를 진행하게 되어 생각보다 세밀한 회의내용에 팀원들이 당황했으나 건축을 공부한 권희 팀원의 도움으로 다행히 원활하게 마칠 수 있었음

(3) 영감(날알)태우기 + 뒷마당 풀 뽑기

- 가장 쉬워 보이는 불 피우기 작업도 노하우가 필요했고, 여러 번의 실패와 시도가 있었음

(4) 비료 만들기 + 모종판에 영감을 채우고 씨앗 심기

(5) 구조 만들기

- 나무에 못을 박는 등의 작업을 할 때 여성 팀원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서 남성팀원에게 미안하기도 하면서 마음만 앞서는 상황에 답답하기도 했음

(6) 지붕 덮기

- 엄청난 더위에 계속해서 하늘을 바라보는 작업으로 인해 간달팀의 에너지뱅크, 권희 팀원이 현기증을 느꼈을 정도

(7) 플라스틱 화분 만들기

- 플라스틱 병의 비닐과 뚜껑을 제거한 후 옆면에 화분 구멍을 두 개 뚫고 바닥에 구멍을 뚫어 다른 플라스틱병과 연결
- 쇠를 달구기 위해 계속 불을 피워야 했고, 그 불도 나무 외에 플라스틱 병이나 비닐 같은 재료로 피워야 했기 때문에 더위와 연기가 작업을 어렵게 했으나 다음 날에 CDP 스태프 Mr. Meng 이 노하우를 알려준 덕분에 쉽게 마무리할 수 있었음
- 농부님이 전날 잘못 만드신 부분을 일일이 다 고치고 재료가 없어서 작업을 중단하고 기다려야 하는 등 다양한 시행착오를 겪었음
- 11개의 플라스틱 병 세트를 총 30줄 제작



5



6



7



8

5 지붕을 덮을 때 세 가지를 주의해라. 살인 더위, 철사 찢림 그리고 짧은 팔 6 330개의 페트병의 비닐을 떼고 뚜껑을 열고 구멍 3개

#### (8) 철사로 묶기 + 영감 채우기

- 완성된 플라스틱 세트를 구조에 철사로 묶는 작업은 매우 간단해 보이는 작업이지만 농부님 집에 철사를 자르는 도구가 자꾸 사라지는 통에 문구용 가위나 도끼, 식칼 따위의 것으로 자르는 등 철사를 자르는 데 시간이 오래 걸렸던 웃지 못할 상황이 있었음
- 플라스틱 화분에 영감을 채우는 작업 또한 매우 간단해 보이지만 농부님이 한 번 채우실 때 반씩만 채우는 통에 하나하나 확인하고 다시 꼭 채우는 웃지 못할 상황이 있었음

#### (9) 수로 연결하기

#### (10) 물탱크 설치하기

를 뚫는다는 것은... 7 칸불 아저씨와 덕지덕지 바른 선크림 덕분에 하얗게 보이는 권희. 8 이제야 끝이 보이네! 수로 연결.

- 이동시간이 길어서 그 시간을 잘 활용하는 방법을 고민하기 시작했고 휴식시간 또한 너무 많고 유용적이어서 오히려 체력적으로 힘들었다. 휴식시간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시간을 고민해보기로 했다.
- 무더운 날씨에 고된 작업으로 인해 '팀원들의 갈등이 있지는 않을까?' 걱정했는데 서로를 배려하고 도우며 단결된 모습으로 임해 감동을 하였다.
- 시행착오가 많았지만 하나하나 손수 준비한다는 느낌으로 완성되어가는 모습을 보는 게 뿌듯했다.
- 우리 마을에 일원이 된 지 얼마 안 된 상태에서 새로운 만남을 시작해야 하는 것에 부담을 느끼기도 했다. 그러나 이제는 마을을 떠나는 것에 모두가 진심으로 슬퍼할 만큼 마을 내에서 다양하고 깊은 관계들을 맺게 되었다.



부록 #2 유스들과 함께 한 시간

# 피에룸의 일기를 훑쳐보다.

유스들과 함께 할 때 마다 항상 있었던 피에룸에게 일기를 부탁했는데 얼마나 쓰기 싫었으면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손 씻은 이야기를 쓸까. 쉬다가도 나와 다르지 않다고 느꼈다는 이야기에 기막히도 하다. 애니웨이, 언젠나 자기 침대를 내주고 나에게 솔직히 못생겼다고 말해주고 귀찮아도 세편의 일기를 써준 피에룸 사...사...사랑한다!!♡

## #1

ខ្ញុំកាន់ ថ្ងៃទី០៦ខែ១០ឆ្នាំ២០១៤ ខ្ញុំ ដុង ដុង និងមិត្តជាច្រើនបានជិះមកទៅហូបស៊ុបបួសនៅផ្សារតាខ្មៅ ពួកយើងនាំគ្នាហូបយ៉ាងសប្បាយរីករាយ ធ្វើឱ្យពួកយើងមានភាពស្និតស្នាលជាមួយគ្នាច្រើន។ ខ្ញុំមានអារម្មណ៍ថាសប្បាយចិត្តយ៉ាងខ្លាំងដែលបានឃើញពួកគាត់មិនផ្លាស់ប្តូរពួកយើង។  
2014년 10월 6일 나는 동동과 다른 친구들과 함께 로마어(큰 툽툽)를 타로프사 따그마에 있는 Soup가게를 갔다. 우리는 먹는 내내 행복했고 그 시간들 통해 서로가 더 가까워졌다. 나는 동동을 보면서 나와 다르다고 느껴지지 않는 것이 너무 행복했다.

## #2

នៅថ្ងៃទី០៨ខែ១០ឆ្នាំ២០១៤ពួកយើងបានសំអាតស្មៅនៅក្នុងទីធ្លាមណ្ឌលយើងសាមគ្គីសំអាតទាល់ហើយទៀបពួកយើងនាំគ្នាសំអាតដែ។  
2014년 10월 9일 우리는 센터 곳곳을 청소했다. 우리는 끝날 때까지 다 함께 청소했고 같이 손을 씻었다.

## #3

នៅថ្ងៃទី១៣ខែ១០ឆ្នាំ២០១៤ពួកយើងបានដាំបន្លែតាមប្រព័ន្ធជ្យូរទឹក ហើយមានកូន សាលាត កូន ស្លែផ្លែកយច ពួកយើងដាំហើយនៅម៉ោង ១០ព្រឹក ហើយពួកយើងបានញ៉ាំផ្លែសៅមៅជាមួយគ្នាចប់។  
2014년 10월 13일 우리는 샐러드나 양배추 같은 작물을 수경재배 구조물에 심었다. 우리는 오전 10시쯤 심기 시작했고 람부탄도 같이 먹었다.

글 박동호 hyovely58@gmail.com  
번역 탄 thann.khem@caritascambodi.org

# | 경조사 |

카리타스 스태프 어댑의 조카 김홍의 생일잔치와 카리타스 회계 스태프 소포안의 결혼식에 초대받아 함께함.

- 매번 기쁜 일이 있을 때 마다 당사자뿐만 아니라 참가한 모든 사람들이 즐겁게 춤을 추고 행복해 하는 문화를 볼 수 있었다. 청첩장을 주는 것은 비슷하지만 청첩장안에 봉투가 들어 있는 것은 다르고, 푸짐한 음식을 먹는 것은 비슷하지만 신나는 캄보디아 음악이 내내 나오는 것은 다르고, 폐백 때 대추를 먹듯이 신랑, 신부가 음식을 나눠먹는 것은 비슷하지만 그걸 대추가 아니라 포도와 바나나라는 것이 다르다. 한국과는 비슷하면서도 다른 문화가 신기했다.
- 캄보디아 파티에서는 항상 춤을 추는 데,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같이 테이블을 둘러싸고 빙빙 도는 춤에 우리는 푹 빠져버렸다♥ 김홍 생일파티 때는 모두가 앉아 있을 때에도 우리가 먼저 흥을 돋우고 춤을 춰서 파티장 모두의 주목을 받았는데, 민망하기도 했지만 그 정도로 다섯 명 모두 춤 추는 것을 좋아한다.(지난 달 유스 파티 때는 장장 다섯 시간을 뺏었던...) 그럼에도 밤새 노래를 크게 틀어놓고 춤을 추는 캄보디아의 '흥'을 따라잡을 수는 없었다.
- 소폰 결혼식 날에 경미, 동효, 여인팀원은 캄보디아 전통 의상을 입고 화장까지 했다!! 다른 나라의 의상을 입어 보는 것 자체도 재미있었지만 전통 의상을 빌릴 때 봉변과 함께 있었던 것, 화장을 할 때는 유스 친구들이 해주었던 그 과정 자체도 재미있었다.





부록 #3 프랩소땃의 동료 생일상 차리기

19.10.2014

잊지 못할 그녀의 생일



목청 좋은 수탉이 울어대는 이른 아침 난 정말 조심스레 일어났다. 그 이유는 즉슨 눈치가 빠른 동동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서! 동효에게 이곳에서의 잊지 못할 생일을 만들어 주고 싶어 몰래 생일 상을 차려주려고 어덯네에 미리 부엌 사용에 대한 이야기를 해 놓은 상태였고, 또 2주 전부터 미역을 몰래 준비해 두었기 때문에 나는 전혀 들키고 싶지 않았다. 물소리에 동동이 깰까 서둘러 고양이 세수를 하고 모자를 눌러 쓴 뒤 조용히 윤이를 깨워 시장으로 출발했다.

톡톡을 타고 가는 길은 오늘따라 기분이 좋은 탓인지 파란 하늘과 구름이 더 예뻐 보였다. 발걸음을 재촉해 윤이와 잠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우리가 즐겨 먹는 물고기 두 마리, 삼겹살 조금, 또 그녀가 좋아하는 조그마한 고양이 모양의 케이크를 한 개 구입했다..

집에 돌아가서의 일을 머릿속으로 그려 보니 큰 문제가 생겼다. 어리석게도 미역국 끓일 준비물은 다 어덯네에 가져다 놓았는데 반찬을 만들 다른 재료들과 도구들을 미처 챙겨 나오지 못한 것이 생각이 났기 때문이다. 집의 문은 굳게 닫혀 있는 상태였고.. (음식을 완성 후 들어갈 생각이라 열쇠도 챙겨 나오지 않았다)

점점 팀원들이 일어날 시간은 다가오고 행여 들킬까 마음은 조급해졌다. 톡톡을 재촉해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머리를 계속해서 굴렸다. '어떻게 빼 내오지?' '케이크도 샀는데 상하면 어떡하지?' 윤이와 머리를 맞댄 결과 어쩔 수 없이 문을 두들겨 한 사람을 깨운 뒤 어설픈 연기나마 하기로 했다.

20세의 어리버리하지만 착하고 귀여운 청년에게 주어진 미션은 동동에게 들키지 않고 케이크를 냉장고에 넣어 두고 후라이팬, 고추장, 양파, 마늘을 챙겨 오는 것이었고, 나는 촉박한 시간을 맞추기 위해 먼저 어덯네로 가서 미역국을 끓이고 있기로 했다.

귀여운 청년이 문을 두들기자 문을 열어 준 이는 놀랍게도 생일 당사자였고 귀여운 청년은 깜짝 놀랐다. 하지만 미리 귀여운 청년에게 언질을 해 놓은 터라 다행히도 사은 물건들은 집 뒷문 쪽에 숨겨져 있어 들키지 않았다.

문을 열어준 그녀는 커다란 안경을 끼고 부시시한 머리를 하고 있었다. (평소에는 이빠 보일려고 렌즈를 주로 착용한다) 그녀는 배가 고파 일어난 터라 약간 신경이 곤두서 있었고 아침부터 밥을 흘리며 문 앞에서 서 있는 귀여운 청년에게 약간의 성질을 뱉다. "이권희는 어디가고 너는 여기 왜 있어!" 귀여운 청년은 임기응변으로 "권희형은 까리타스에 축구 하러 갔고 난 축구하러 갔다가 힘들어서 왔어"라고 했다. 평소 내가 자주 축구하러 까리타스에 갔던 터라 그녀는 의심하지 않았고 배고픈 그녀는 은연술적 그에게 가까운 시장에 가서 바게트 및 아침거리를 사오라고 압박을 했다.

그는 약간 화가 나 있는 그녀가 조금 무서웠지만 완벽하게 속이기 위해 "귀찮아" 라고 하며 주방으로 갔다. 그녀는 그런 그의 뒷모습을 보며 툭툴거리며 다시 자러 방으로 들어갔고 귀여운 청년은 무사히 재료들을 꺼내 올 수 있었다.

나는 서둘러 미역국을 끓이고 있었다. 양증맞게도 내가 동동에게 절대 들켜서는 안 된다고 했더니 레악(어덯의 아내)은 미역국을 끓일 솥을 찬장 깊숙한 곳에 숨겨줬었다. 아침부터 일어난 요란스러운 소동에 동네 아주머니들도 삼삼오오 내가 미역국을 끓이고 재육볶음이며 생선을 굽는 것을 구경하러 오셨다. 사내가 요리를 해서 그런지 더 신기해 하시는 줄 알았는데 이유는 '미역' 때문이었다. 바다가 세 군데 밖에 없는 캄보디아에서 그런지 미역을 말로만 들었지 처음 본다고 들 하졌다. 미역도 남고 어려운 일이 아닌터라 큰 솥에 미역국을 한 솥 더 끓였다. 완성 된 미역국을 맛보시는 아주머니들은 증안!(맛있다)를 남발하셨고 덕분에 나는 마음이 놓였다.



귀여운 청년은 재료를 가져다 준 뒤 우리 집 평상에서 동태를 살피고 있었다. 하염없이 문을 쳐다보고 있던 그는 소스라치게 놀랐다. 이번에는 배가 '너무' 고파서 일어난 그녀가 눈을 부릅뜨고 쳐다보고 있었기 때문이다.

놀란 그는 그가 좋아하는 전기파리채를 휘두르며 "아 모기가 와이리 많노" 라고 어설픈 표정을 지어 주의를 돌리려 했으나 배고픈 그녀는 소리쳤다. "귀찮다면서 밥은 왜 했어!" 평소 바게트를 좋아하는 그녀는 그가 바게트를 사오지 않아 화가 치밀었다. 귀여운 청년

은 당황하며 변명했다. "밥은 그냥 일어나자마자 습관적으로 했어" 그의 변명으로 인해 그녀는 더 화가 났고 계속해서 귀여운 청년을 구박했다. 그는 그런 그 상황이 힘겨웠지만, 왜 멍청하게 평상에 앉아 있냐고 하는 그녀의 물음에 "경치가 좋잖아" 라는 명언을 남기며 다시 나에게로 도망쳐 왔다. "형 동동 일어났어. 근데 배고파서 많이 화나 있는 상태야" 때마침 생일상은 완성 되었고 나는 귀여운 청년에게 얼른 집으로 돌아가 경미와 여인을 깨워 얼른 케이크에 불 붙일 준비를 하라고 했다. 그는 쪼르르 달려갔고 나는 서둘러 음식들을 들고 집으로 향했다.



음식을 들고 들어선 주방에는 입이 쫘хи 5cm는 튀어 나와있는 한 배고픈 소녀가 앉아 있었다. 나를 본 그녀의 눈은 동그라졌다. "오빠 이거 준비하고 있었어!? 언제 이걸 다 준비했다?" 눈치 채지 못한 그녀가 고맙다고 내심 뿌듯했다. 마침 고양이 케이크도 생일 축하 노래와 함께 등장했고 평소 감점표 현이 서툰 그녀는 행복한 티를 내지 않으려 문밖으로 도망치듯 나갔다.



나는 후다닥 문밖으로 뛰어 나가는 그녀의 뒷모습에서 은빛 구슬이 떨어지는 것을 어렴풋이 보았다.

아무튼! 성공적인 생일상과 깜짝 선물에 배고팠던 그녀는 맛이라며 미역국 한 솥 (약 8인분)을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맛있게 다 먹었고 요란스러웠던 그날 아침은 이렇게 행복하게 시작되었다.



## 자칭 효블리 사진전







## | End poverty campaign |

10월 17일 세계빈곤퇴치의 날을 맞이하여 캠페인을 기획하고 진행함.

(1) 유스, CDP 마을 농부님들에게 조사 + 번역  
 - 우리는 10월 1일 1차 기획서 작성을 앞두고 문제 파악을 하기 위해 카리타스 스태프, 유스 그리고 CDP 마을 농부님들에게 “빈곤에 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의 답변을 받았다. 크메르어로 적은 답변은 카리타스 스태프분들의 도움으로 영어로 번역했고 영어로 번역된 것은 한국어로 다시 번역해 그 답변을 바탕으로 상황분석을 할 수 있었다. 언어의 문제로 각각의 답변의 의미를 다 담아내지 못하는 것 같아서 아쉬워하는 팀원도 있었다.  
 - 사전조사를 함으로써 우리의 판단으로 캠페인을 기획하는 것이 아니라 현지 상황과 필요에 맞게 기획할 수 있어서 과정은 조금 복잡했지만, 의미 깊었던 시간이었다.

- 유스들과 아직 관계가 깊지 않은 상태에서, 특히 농부님들과는 처음 뵙는 자리에서 질문을 드리게 되어서 혹시나 마음이 불편하지 않으실까 걱정을 했다. 하지만 적극적으로 답변해주시고 관심도가 가져주시는 등의 모습을 계기로 더 열심히 캠페인을 기획할 수 있었다.

(2) 1차 기획서 작성

가장 먼저 팀원들 각자가 이때까지의 활동, 답변, 포르노그래피 등을 통해 생각한 것을 나누었다. 유스들과 만남에서 나를 친구가 아닌 외국인으로 대했던 이야기, 나도 유스들을 나와 다른 사람으로 생각했던 이야기, 절대적 가난에 처해있는 농부님들과 빈곤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마음 불편한 이야기 등 다양한 느낌을 나눔으로 서로의 생각을 듣고 이해할 수 있었다.

그리고 다음으로 상황분석을 통해 답변자들 대부분이 빈곤을 물질적인 부분에 국한해서 생각하는 것이 또 다른 빈곤, 즉 문제라고 생각했다. 이것의 근본원인을 생각해 보다가 우리 또한 빈곤을 폭넓게 바라본 것이 국내훈련의 교육을 통해서였다는 점을 떠올리고 교육의 부재가 근본 원인이라고 파악했다. 하지만 실제로 절대적인 가난에 직면해 있다는 점, 그래서 빈곤하면 물질적 가난밖에 생각할 수 없는 환경 또한 무시할 수 없는 원인이라는 것을 생각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이 개념 확장, 특히 외국인에 대한 편견을 버리기를 것을 목표로 설정했지만 이렇게 한 가지로 국한하는 것보다 다양한 생각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더 의미 있다고 판단하여 어떤 개념이든 또한 그것이 얼마만큼이든 개념이 확장되는 것 자체를 목표로 설정하기로 했다. 하지만 우리가 궁극적으로 바라는 것은 그들 뿐만 아니라 우리 개념도 확장되는 것이다. 다양한 개념을 알고는 있지만, 그것을 진정으로 체화하지 못한 우리 모습을 돌아보며 캠페인을 통해 변화길 바랐고 빈곤퇴치 캠페인의 시간을 통해 설령 개념 확장이 되지 않더라도 그 시간 자체가 농부님들과 유스들 그리고 우리에게 즐거움과 행복을 주길 바란다.



### (3) 회의(14.10.12)

- 카리타스 캠페인: 사람책

날짜와 시간 : 매주 금요일 5시 30분

어떻게? 유스, 스태프, 아띠들이 돌아가면서 한 주씩 맡는다. (처음 사람책은 24일 권회)

첫 주에는 같이 현수막을 만들고 사람책에 관한 설명을 한다.

왜? 수원 국내훈련 때 지도자 활동 중 하나로 현수막을 완성해야 했다. 아이들이 원하는 것을 자유롭게 그리며 함께 현수막을 만들기로 결정했고 우리와 학생들 모두에게 소중한 경험이 되었다. 이 경험을 바탕으로 빈곤퇴치 캠페인도 함께 즐겁게 하기를 바라는 마음에 현수막을 함께 만들기로 했다.

현수막 내용 : 10월 17일부터 계속, 라온아띠-카리타스, 나의 이야기

현수막 디자인 : 이면지를 이용해 퍼즐 맞추는 식

- CDP 마을: 마을을 더 둘러보고 마을에서 생각해보기 했다.





#### (4) 10월 17일 세계빈곤퇴치의 날

- 카리타스 센터(따끄러 마을) : 아띠, 유스, 카리타스 스태프들이 모여 세계 빈곤퇴치의 날, 빈곤의 정의, 우리가 생각하는 빈곤 등을 이야기하고 함께 ‘나의 이야기’ 현수막을 완성했다. 언어에 문제가 있었는데 스태프 멩이 우리가 생각한 빈곤퇴치의 개념을 정말 상세하게 설명해주면서 통역을 도와주었다. 덕분에 소통도 원활했고 내용도 풍부해서 너무 고맙았다, 앞으로 유스들과 스태프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되도록 진행할 예정이다.



- CDP 활동지(즈라이 요웅 마을) : 마을 청년 3명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적은 수여서 더 깊은 이야기를 할 수 있었고 기존의 종이에 답변을 받는 방식이 아닌 직접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서 의미가 있는 시간이었다. 먼저 빈곤이 더 넓은 개념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자신의 빈곤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가장 크게 나온 것이 ‘교육의 부족’이었다. 이것을 바탕으로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교육의 가치’를 알리는 게 어떨것냐는 이야기가 나왔지만, 물질적인 빈곤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캠페인을 진행하는 것이 누군가의 마음을 다치게 할 수도 있겠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예를 들어, 정말로 ‘교육의 가치’를 높이 평가하고 있지만 실제로 너무 가난해서 학교를 보낼 수 없는 상황에 우리가 ‘교육의 가치’를 논한다면 그 부모님의 마음이 아플 수도 있기 때문이다. 10월 즈라이요웅 마을에서의 빈곤퇴치캠페인은 이러한 문제와 시간상의 문제로 큰 활동 없이 마무리했지만 현지인들의 마음이 다치지 않아야 한다는 중요한 생각을 다시 했다.



(5) 10월 24일 빈곤퇴치캠페인 2차 시

- '나의 이야기' 권희 편을 통해 권희 팀원의 가족이야기, 성장 과정, 꿈 이야기 등을 들을 수 있었다. 캠페인 후에 아띠들끼리 모여서 피드백을 했고 권희 팀원의 발표는 좋았지만, 언어의 한계, 나눔 시간 부족 등 몇몇 아쉬운 점이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했고 앞으로는 이런 피드백을 유스와 카리타스 스태프들에게 함께하자고 제의하기로 했다.

- 권희의 한 마디: 빈곤의 개념확장을 주제로 우리가 시작하게 된 사람책 프로젝트는 서로를 좀 더 편하고 자유롭게 표현할 기회여서 서로가 외국인이라서 가진 편견을 줄이고 더 친밀해질 수 있는 기회였던 것 같다.

- 다음 달에는 카리타스 스태프 탄과 유스 소포안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 것이다.

(6) 2차 기획서

- 카리타스 센터(따끄러마을): '한국인과 캄보디아인은 다르다'는 생각의 빈곤을 퇴치하고자 '나의 이야기'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나의 이야기' 프로젝트는 아띠, 유스, 카리타스 스태프들이 매주 금요일 5시부터 6시까지 돌아가면서 자신의 이야기(가족, 친구, 꿈, 취미, 고민, 사랑 등)를 원하는 방식(사진, 그림, 노래, 영상 등)으로 나눈다.

10월 17일 세계 빈곤퇴치의 날을 맞이하여 카리타스 내에서 아띠, 유스, 카리타스 스태프들이 모여 세계 빈곤퇴치의 날, 빈곤의 정의, 우리가 생각하는 빈곤 등을 이야기하고 함께 현수막을 완성했다.

10월 24일 빈곤퇴치캠페인 2주차에는 '나의 이야기' 권희편을 진행했다.

- CDP 마을: 앞으로도 계속 다른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CDP 활동을 할 예정인데 그곳에서도 계속 빈곤퇴치캠페인 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

하지만 쓰라이요웅 마을에서 경험한 일도 있고 한 마을에서 2주에서 한 달 정도 있는데 (그것도 매우 불확실하기에) 그 안에 마을을 파악하고 회의하는 것이 어려우므로 이번에는 미리 퇴치하고자 하는 빈곤과 그에 따른 콘텐츠를 정해서 진행하기로 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한 CDP 마을에서의 빈곤퇴치캠페인은 '아시아 알아가기'이다. 처음에는 가볍게 파견국 7개국에 관한 간단한 게임 (예를 들어, 아시아 지도 맞추기 게임)을 준비해 마을 주민들과 함께 놀면서 관계를 맺고 나중에 더 깊어지면 그에 따른 프로젝트도 진행할 예정이다.

- 아띠하우스  
1차 기획서에도 나와 있듯이 우리 또한 우리의 개념이 확장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어 11월 중에 서로의 빈곤을 고백하는 시간을 가지기로 했다.





부록 #4 카리타스 CDP스태프 리티와의 동문서답 인터뷰

## 코니남, 취미는 친절이라 하네

지난 인수이계 때 전 기수로부터 카리타스 스태프의 간단한 소개를 들었다. 그 때 리티의 소개로 ‘코니남’을 쓴 권희팀원이 그게 무슨 뜻인지 한참을 고민했는데 알고보니 ‘쾌남’이었다는 사실에 팀원들 모두 한참을 웃어 제끼곤 그 뒤로 우리끼리 리티를 코니남이라고 부르곤 했다. 두 달이 지난 지금, 그는 소개 그대로 늘 먼저 웃어주고 인사해주고 도와주는 ‘쾌남’이었다. 딱히 우리 팀과 프로그램을 같이 진행하는 것도 아닌 그가 우리에게 무한한 애정과 관심을 보이는 이유가 궁금해졌다.

(다짜고짜) 왜 이렇게 친절하세요?

(무슨 뜻인지 이해 못 해 다시 설명해주자) 그것은 제 취미예요(웃음). 그리고 캄보디아 사람들의 친성이기도 하고.

카리타스분들 모두 언제나 우리를 챙겨주셔서 너무 고마워요. 그러니 혹시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일이 있다면 꼭 말해주세요.

그럼요. 10, 11기 아띠들과도 가끔 페이스북에서 채팅을 하곤 해요. 우리 카리타스 스태프들 역시 현재까지도 그들과의 관계를 이어오고 있어요. 특히 제 결혼식에 11기 아띠들이 함께해줬는데 정말 잊지 못 할거예요.

그때, 뷔레호식당에서 우리를 만났을 때 테이블을 잡아주고 음식을 주문해주고 식당 아주머니에게 우리를 부탁했던 것 기억하세요? 그때 정말 감동했어요. 아주머니께서는 당신들과 같은 아이들이 있고 그 아이들이 어디를 가든 아주머니께서는 걱정하시고 늘 생각하세요. 그 때문에 아주머니께서는 외국인을 포함한 다른 사람들에게 잘 대해주시고, 걱정해주시는 것이고.

또 CDP 마을 농부님에게 빈곤퇴치캠페인을 설명할 때도 리티가 통역을 도와줘서 너무 고마웠어요. 리티가 생각하는 빈곤은 뭐예요?

캄보디아에는 물질적으로 매우 가난한 사람들이 많아요. 나 역시 그것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고, 그 사람들에게 대해 걱정하고 있는데 주요한 이유 중 하나는 낮은 교육 수준인 것 같아요. 만약 그 사람들이 고등 교육을 받는다면 여러 가지 방향에서 생각할 수 있겠죠. 하지만 사람들이 교육을 받지 않는다면 낮은 수준에서만 생각이 머물고, 오직 한가지 방향으로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교육이 중요한 이유죠.

저희 또한 물질적 빈곤, 특히 교육의 부재에 대해 많이 걱정하고 고민하고 있어요. 또 저희가 진행하는 캠페인은 그러한 물질적인 빈곤과 함께 외로움, 무감각 같은 정신적인 빈곤 또한 퇴치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있어요.

맞아요. 희망이 없고 외로운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많은 사람이 모이고, 그들을 위한 아이디어를 내기 시작하죠. 그 때문에 사람들을 위한 많은 해결책과 방향들이 나오고 있어요.

단순히 물질적인 해결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입장에서 고민하는 것이 참 어려우면서도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리티가 가진 빈곤이 뭐지 물어봐도 될까요?

저는 가족이 어머니밖에 없어요. 그 때문에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에 대학에 갈 돈이 없었고 건축 일이나 레스토랑 웨이터 일을 하면서 돈을 벌었어요. 그 이후에는 카리타스에서 직업 훈련을 받았고요. 비록 돈이 많지는 않지만, 마음만큼은 부유하다고 생각해요. 언제든 외국인들에게 친절을 베풀 수 있는 마음이 있어요. 또 외국인과 이야기를 나누면 그들과 관계가 생기고, 문화를 배우고, 언어를 늘릴 수 있어 나에게 아주 기쁜 일이지요. 또 가난했기 때문에 CDP 마을의 농부님과 카리타스 학생들의 마음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죠.



그럼 언제부터 카리타스에서 있었던 거예요?

2005년 이곳 간달 카리타스에 CDP반 학생이었어요. 그리고 2006년부터는 자원봉사자로 일했고요. 제가 있었을 때도 라온아띠같은 친구들이 봉사하러 와서 지금처럼 같이 마을에 가서 일하고 그랬어요.

지금은 주로 어떤 일을 하고 있으세요?

아띠들이 마을에서 하는 일과 비슷해요. 농부님과 관계를 맺고 교육을 하고 농사일을 하죠. 그리고 마을의 생산만 돕는 것이 아니라, 시장과도 연결하는 작업도 하고 있어요.

한국에선 유통과정에서 브로커들 때문에 생산자가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어요.

캄보디아에도 그런 일이 있어요. 하지만 생산자들이 자신의 물건이 올바르게 판매되는 것을 보게 되고 생상품에 대한 주인의식을 갖게 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것이 소비자에게도 좋은 일이 된다고 생각해요. 주인의식을 갖고 생산한 제품이 더 좋을 테니까요. 혹시 꿈이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사업가가 되고 싶어요. 언젠가 카리타스에서 은퇴 하고 나면 닭 농장 주인이 되고 싶어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 있다면해주세요.

한국과 캄보디아의 문화와 삶은 다르고, 그래서 아띠들이 어떤 부분에서는 CDP일과 그 과정에 대해 이해하기 힘들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럼에도 아띠들이 노력하고 있는 것을 알아요. 나에게서는 그게 보여요. 하지만 CDP일에 대해 꾸준히 참여하다 보면 마을 개발 일에 대해 깊게 배울 수 있을 거예요.

인터뷰를 할 때는 몰랐는데 글로 작성하고 나니 리티와 나, 꽤나 동문서답 인터뷰를 했더라. 그래도 “미소가 어울리는 그녀 취미는 사랑이라 하네 만화책도 영화도 아닌 음악 감상도 아닌~” “이라는 노래 속 주인공처럼 취미가 친절이라니 얼마나 예뻐 보이는지 언젠가 나도 13기를 만나 리티를 소개해 줄 날이 온다면 뭐라고 소개해 줄 수 있을까? 처음엔 코니난 이야기를 해주고 나중에 그의 친절에 관해 이야기를 해야 할까. 아니다. 그냥 그를 만나서 그의 미소를 보라고 말해주고 싶다. 매일 아침 카리타스에 출근한 우리에게 서툰 발음으로 “조흔 아찐”이라고 인사하고 웃어주는 그를 보라고 말해주고 싶다.

# | 투슬렝박물관 |

캄보디아 정서를 더 이해하고자 휴일을 맞아 프놈펜에 위치한 투슬렝 박물관을 견학함.

-크메르루지 정권하에서 지식인들을 고문하고 처형하던 고등학교 건물인데, 지금은 킬링필드 시절을 기억하게 하는 대표적인 박물관으로 사용된다. 크메르루지 통치 기간 중 약 2만 명의 캄보디아인이 이 고문 시설을 거쳐 갔고, 무수하게 많은 사람들이 처형되었다. 통계로는 단 6명의 사람만 이곳에서 살아 나왔다고 한다.

**권희(소밭) :** 일제 강점기에 우리나라가 겪었던 일들과 아주 비슷해서 동질감이 많이 들었고, 캄보디아 사람들의 역사를 잘 알 수 있게 되어 조금 더 그들의 저서를 이해 할 수 있게 된 것 같다. 캄보디아의 역사가 궁금해지기 시작한 계기가 되었다.

**태운(쌈뽕) :** 어떤 나라 사람들의 정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나라의 역사를 알아야 한다는 것을 느꼈다. 캄보디아 사람들의 과거 속에 남아있는 고통과 슬픔을 전부 다 이해하고 공감할 수는 없겠지만, 그들이 얼마나 잔인하고 힘든 역사를 겪었는지 그 기록들을 보면서 그들의 상처를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싶은 감정이 들었다. 우리나라가 과거에 겪었던 일제 강점기와 같은 슬픈 과거를 가졌음에 함께 아파하고 서로의 상처를 가슴에 묻은 채 그들의 슬픔을 조금이나마 알 수 있으면 좋겠다.

**동효(동동) :** 감옥을 돌아보는 것도 심적으로 힘들었지만, 희생자들의 사진을 볼 때가 가장 힘들었다. 안산 세월호 분향소를 갔을 때도 희생자들의 사진을 봤는데 사진 속의 사람들이 나를 보는 기분을 느꼈었다. 아무 말도, 아무 표정도 없는 사진은 감은 두 눈을 다시 뜨기 어려울 정도로 나를 알 수 없는 무기력함과 죄책감에 빠지게 했다. 투슬렝 박물관에서 그 사진들을 보면서 같은 느낌을 받았다.

죽음 앞에서 생명을 이야기하는 것이 참, 그렇지만 정말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이곳에서도 한국에서도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야겠다. 그리고 나의 빈곤을 사무치게 깨달았다. 나의 빈곤은 망각이다. 아직도 진행중인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 이토록 아무렇지 않은 마음을 갖게 되고 투슬렝에 와서야 다시 어렵듯하게 떠올리는 내 모습이 너무 싫었다. 밀양 할머니도, 삼성 노동자분들도, 희생자와 그의 유가족 모두 잊고 싶지 않다.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모르겠다.

**여인(이니) :** 투슬렝 감옥 희생자들의 얼굴이 우리가 가까이 있는 사람들의 얼굴과 다르지 않아 더 공감할 수 있었다. 그리고 역사로써 캄보디아와 더 가까워지는 계기가 된 것 같다.

**경미(미미) :** 건물을 고작 몇 걸음만 나와도, 내 앞에 있는 풍경은 다른 세상 같다.

모든 것이 마음을 답답하고 무기력해지게 만드는 공간이었지만 희생자들의 사진이 가장 나를 힘들게 했다. 지금 내가 매일같이 마주치는 어리고 작은 아이들과, 마을 어른들, 센터 안의 스텝들과 유스들과 아무 것도 다르지 않았다. 지금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모두의 모습을 담은 것만 같았다.

문득 내가 지금 분에 넘치게 행복하게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 곳, 캄보디아에서 만나는 모든 아름다운 풍경들과 모든 아름다운 사람들을 만나는 일이 당연한 일이 아님을 말해준다. 이유도 모른 채 희생되어야 했던 누군가들이 있기에 평화라는 것이 당연한 게 아님을 깨닫고, 이 곳에서 이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생각하게 된다.

이 나라에 지금에서야 깃든 평화가 영원히 깨어지지 않기를.

# 더불어 함께살기





# | 먹고 마시고 사랑하라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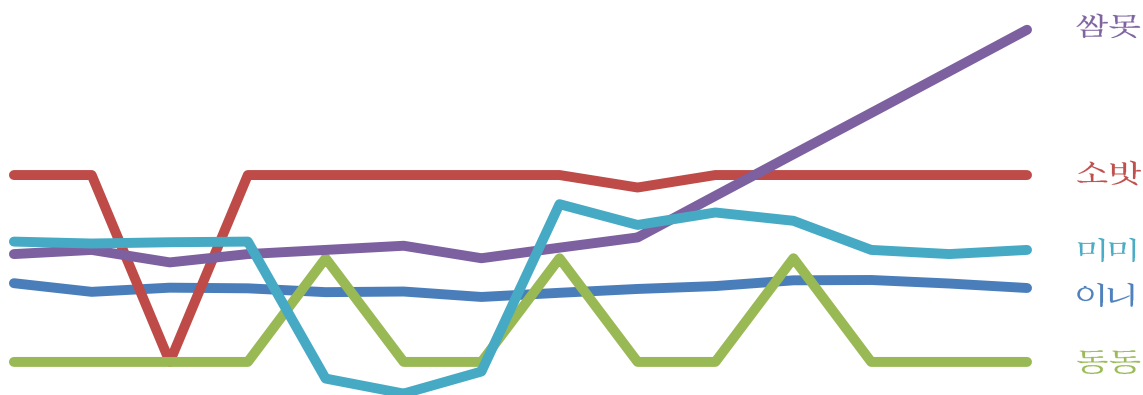
대부분 아침, 점심, 저녁을 다 해먹는 우리의 먹는 이야기

- CDP 활동을 시작하면서 식사당번 2명은 아침 6시에 기상하여 아침 식사와 점심 도시락을 준비해야 했다. 집에서 밥을 차려 먹는 것도 부담스러웠던 우리는 또 적응하고 나날이 늘어가는 팀원들의 요리 실력에 감사한 날들을 보내고 있다.

-매번 럭키마트에서 고기를 사 먹던 우리는 **푯사(시장)**에서 불안하지만 고기를 사보았다!! 처음에 샀던 고기는 냉장고에 넣었다가 이틀 반 만에 생명을 다했다. 심기일전 두 번째로 샀던 고기는 수육으로 요리 당해 주인 할머니께서 주신 캄보디아 국수와 함께 먹었다. 세 번째로 산 삼겹살은 혹시 탈이 날까 과자 처럼 느껴질 정도로 매매 구워지고 그 뒤엔 비빔밥에 넣어지기도 했다. 이렇듯 우리의 고기 없는 날은 여전히 고민 중..이...다.. (태국팀 아니 지구야 미안...ㅠ)

- 국내훈련 때 간사님께서 아무거나 막 주워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음에도 10월 초, 경미 단원이 장티푸스에 걸리는 바람에 한동안 죽 말고는 다른 음식을 잘 먹지 못했다. 다른 팀원들은 미미 단원만 죽을 먹는 게 미안해서 약 1주일 가량 다같이 밥 대신 죽을 먹으며 생활했다. 우리는 혹시 포용과 화합의 결정체? 이 때 죽을 잘 만드는 권희 단원이 나서서 늘 색다른 종류의 죽을 선사하였다. (일명 권죽)

## 식사량 그래프



**쌘뭇** : 가끔 팀원이 6명이 아닐까 의심될 정도로 2인분 양의 식사를 거뜬히 해치우는 그는 국내훈련 최고 식사량의 소뭇을 제치고 당당히 1위를 차지했다. 그래프를 뚫고 나갈 듯한 그 식욕이 떨어지는 날이 과연 올까?

**소뭇** :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안에서 먹나, 밖에서 먹나 여전히 언제나 늘 꾸준한 식사량을 유지하는 알고 보면 관리하는 남자. 하지만 더울 때는 예외라는 거~ 팀원들 중 캄보디아 음식을 가장 잘 먹는다. 그의 별명은 '쭈룩' (돼지)

**미미** : 모든 상황을 "맛있겠다."로 종결해버리는 기승전남의 그녀가 얼마 전 장티푸스로 마이너스를 찍어 식생활에 어려움을 겪었다!! 물론 눈 깜짝할 새에 다시 전성기로 향하고 있으니 걱정을 하 덜덜 마시라.

**이니** : 캄보디아 와서는 아프지도 않고 가리는 음식도 없고 늘 적정량으로 식사를 하는 그녀도 과일 앞에선 대식가. 카리타스에서 간식타임에 먹는 덜 익어서 신 과일도 그녀만 먹는다.

**동동** : 당근, 양파 싫어하고 캄보디아 음식도 적응하는 데 꽤 걸린 그녀에게 비밀이 있었는데, 그건 바로 자기 한 요리만 좋아한다는 사실!! 얼마 전 소뭇에게 그 비밀을 듣키는 바람에 식사시간 마다 곤욕을 치르고 있다.



부록 #5 캄보디아 식생활 후기

# 늘 먹던 걸로 주세요

카리타스 스태프들이 점심때마다 자주 이용하는 ‘쁘레호’ 식당에 따라가게 되었다. 쁘레호 식당은 원래 우리가 자주 가던 어담네(카리타스 직원 분) 식당과는 달리 아주 많은 종류의 캄보디아 음식을 즐길 수 있는 곳이었다. 쁘레호 식당은 우리 팀이 살고 있는 따끄르의 마을에서 차로 가면 약 3분, 걸어서 가면 15분 정도로 걸리기 때문에 참 애매했었다.



그러다가 카리타스에서 우리들에게 자전거를 빌려 줄 수 있다고 해서 자전거를 타고 쁘레호 식당을 자주 애용했다. 자전거 타기를 좋아하는 팀원이 많아서 쁘레호 식당에 갈 때마다 발걸음이 참 가볍고, 유쾌하다.



우리가 쁘레호 식당에서 즐겨먹는 음식은

‘뜨라이 찌은(생선 구이)’이고 특히 아주 독특한 짠 맛의 ‘봉 띠을 크랄릭 찌은(캄보디아식 계란 구이)’이다. 한 번은 장조림 같은 음식을 스태프들이 시켜먹는 것을 보고 우리도 먹고 싶어서 식당 아주머니께 우리가 알고 있는 ‘삿 주룩(돼지고기), 붕(계란) 등의 단어들을 열심히 조합해서 장조림에 대해 설명을 드렸다. 하지만 소통의 문제로 장조림에 대한 설명을 완벽하게 전달할 수는 없었고, 결국 나온 음식은 계란구이에 돼지고기가 들어간 ‘봉 띠을 찌은 삿주룩’이라는 음식이 나왔다. 그런데 이게 웬 일인가? 그 음식은 또 새로운 맛이 있었다. 처음에는 단어 조합이 이상하길래 ‘아주머니가 우리를 위해 새로운 음식을 억지로 만드신 건가?’ 하는 생각도 했는데, 돼지고기 계란구이는 우리 팀원들의 끝없는 입맛을 만족시키기에 충분히 훌륭한 맛이였다.



우리가 쁘레호 식당에 반한 이유는 맛뿐만이 아니었다. 착한 가격 또한 우리의 욕구를 충족시켰다. 단순히 저렴한 가격이 아니라, 어떤 메뉴를 얼마나 많이 시켜 먹든 간에 무조건 1인당 1,5달러에 해결 할 수 있다는 게 정말 매력적인 이유이다. 게다가 쁘레호 식당에 갈 때마다 우리를 반겨주는 작은 고양이 두 마

리는 우리들의 발걸음을 계속 재촉한다. 쁘레호 식당에서 조금만 걸어가면 쁘레호 시장이 나온다. 쁘레호 시장에서는 로차(캄보디아식 볶음 우동)와 놈빠우(고기 만두), 닭다리 구이 등의 음식도 즐길 수 있다.



요즘에는 CDP 활동 때문에 쁘레호 식당에 가지 못하고 있다. 심지어 주말에는 밥은 안하고 커피 같은 음료만 팔기 때문에 CDP 활동을 하지 않는 아띠워크 때가 아니면 쁘레호 식당에 갈 일이 별로 없다. 아침, 점심, 저녁을 다 직접 해먹는 우리, 가끔은 장을 보고 오면 툭툭 가격까지 합쳐서 식당에서 사먹는 것보다 돈이 많이 들 때도 있다. 우리가 식당이라도 하나 차려서 운영할까 그냥...

이제는 쁘레호 식당에 가면 아주머니와 남자 직원 분이 우리를 아주 반갑게 맞아 주신다. 한 식당의 단골이 된다는 것, 그들에게 반가운 사람이 된다는 것은 참 정겨운 일인 것 같다. 낯선 곳에서 우리를 반가워 하는 곳, 우리가 익숙한 곳, 그런 곳이 앞으로 많아지면 좋겠다.





부록 #6 사마귀 제거기

# 하얀동동거탑

## 10.13 인턴 일지

아따대학교병원에 인턴으로 들어 온지 2개월, 이제 점점 이곳에서의 생활이 익숙해진다.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저녁 7시에 모든 일과가 끝나는 이런 노동착취의 현장에서 참 배우는 게 많은 것 같다.

특히 병동 내의 가장 영향력 있는 외과의이신 박선생님(동동 단원, 본명: 박동효, 21)은 정말 멋있는 것 같다. 자기 일에 대해 열정도 있고, 실력이 뛰어나시기 때문에 많은 의사들의 질투와 시기를 받는다.

하지만 그런 질투와 시기를 단 번에 존경으로 바꿔버리는 큰 수술이 지난 13일에 있었다. 환자는 캄보디아에서 생활하고 있는 프렙소밋 씨(본명: 이권희, 24)는 자신의 발에 1년간 곁을 때마다 콧물 찢러 본인의 신경을 날카롭게 했던 큰 사마귀로 고통을 받고 있었다. 사마귀의 고통으로 형성된 그의 날카로운 성격 때문에 함께 정신적인 고통을 받고 있던 팀원들의 불만이 폭발할 지경이었다. 그 때 나선 사람이 바로 ‘손톱깎이로 사마귀를 제거하는 방법’에 대해 논문까지 발표한 사마귀 제거의 1인자 박선생님이셨다.

박선생님은 본업인 캄팜 일지작성도 중단한 채 수술을 감행하셨다. 병동에서 가장 실력있는(사실 한 명밖에 없는) 이니 레지던트(본명: 이여인, 25)가 수술보조를 맡았고, 김간호사(미미, 본명: 김경미, 20)가 처음 보는 수술현장에 당황하여 어쩔 줄 몰라하며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다.

박선생님은 자신감 있게 손톱깎이를 집어 들어 조심스럽게 사마귀를 제거하기 시작하셨다. 방이 어두워서 전기파리채에서 나오는 불빛에 의지해야 하는 열악한 작업환경 속에서도 박선생님은 최고의 집중력을 발휘하셨다. 사마귀의 뿌리가 이미 너무 깊어서 완전히 제거하지는 못했지만, 환자의 고통은 어느 정도 없어진 듯하다. 게다가 보너스로 발에 있는 물집 몇 개도 손수 터뜨려 주시고, 이니 레지던트의 손에 박힌 가시도 빼주셨다.

사마귀를 완전히 제거하지 못해서 프렙소밋 환자는 박선생님을 돌팔이로 의심하는 것 같다. 하지만 나는 믿는다. 그 날, 박선생님께서 보여주시는 환자에 대한 열정(또는 개인적인 욕심?)은 그 누구보다 뜨거우셨다.

글과 사진 김태윤 <kimty1732@naver.com>



# 손님, 이걸 얼굴이예요

캄보디아에서 살아간 지 어느덧 2개월이 다 되어가는 당신. 캄보디아 오기 전에 잘랐던 머릿도 점점 길어지고, 더운 날씨에 머리를 정리하고 싶어진다.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 #선택1 가족에게 맡긴다



온 가족이 나와 당신을 구경하는 가운데, 치마를 망토처럼 뒤집어 쓰고 앞머리를 잘랐다. 연신 “야 너 나 못 믿냐? 누나만 믿어”를 외치더니 다 자르고 나서야 “...사과 드리게 어머니 메일주소라도 알려줘..”라며 이제서야 렌즈 한 쪽을 잃어버린 채 머리를 잘랐음을 고백한 미용사, 당신은 이미...(빙구)

## #선택2. 이웃을 찾아간다



이웃집 처녀는 마을에 미용실이 있냐고 묻는 당신을 갑자기 자신의 어머니께 데려간다. 당신은 어머니가 꺼내 드신 녹슨 가위와 자신을 둘러싼 채 울고 불고 난리가 난 이 집 아기들에 극심한 불안감을 느끼지만 꺾 참는다. 거침 없이 자르시는 어머니께 “마마!”를 외치며 절규하던 당신은 옷 속 가득한 머리카락과 함께 털레털레 미용실에 가 다시 머리를 다듬는다.

## #선택3. 그냥 돈 주고 자른다



몹시 현명한 선택이다. 당신은 말이 잘 통하지 않을 새라 사진까지 준비해가는 철저함을 보인다. 센스 있는 미용사님과 적당한 가격에 원하는 머리스타일을 한 당신은 만족스레 미용실을 나온다.

만약 당신이 캄보디아에서 머리를 자른다면 미용실을 갈 것을 추천한다. 그러나 굳이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고 싶다면 가족이나 이웃에게 자르는 것도 말리지 않겠다. 선택은 당신의 몫이다.

# 그대들의 이야기



# 사연있는 사람들이 사는 이야기



이름: 이여인(Ini, 25)

새로 생긴 별명 : 마리앙투아네트, 단호박

\* CDP 활동 중 미미가 엉킴(날알 같은 것) 고르기를 하는 와중 "엉킴이 떨어지는 게 아깝다."라고 이야기하자 "그럼 떨어뜨리지 마." 라고 말을 해 "빵이 없으면 케이크를 먹으면 되잖아."라고 말을 남긴 '마리앙투아네트'를 연상시켰다. 이 외에도 동동이 웃이 예쁘다고 말하면 "그럼 사." 라고 말하거나 비싸다고 하면 "그럼 사지마." 라고 말해 모두에게 충격과 웃음을 안겨주었다.



이름: 이권희 (Preap sovath, 24)

새로 생긴 별명: 러블리 펴 (다리 털이 곱슬곱슬), 고니남 (코니남 짝퉁)

\*이권희(소박): 동동이 계란 사온다고 돈을 달라고 하자 "돈을 해! 일을 줄 테니까."라고 말을 해 깡달TIM의 "돈을 해." 말하기 열풍을 일으켰다. "돈을 해! 밥을 줄 테니까." "돈을 해! 청소를 할 테니까." "돈을 해! 빨래를 널 테니까" 등이 있다.



이름: 박동호(Dongdong, 21)

새로 생긴 별명 : 동송, 통통, 동동, 뽕뽕, 토왓토왓 (뽕뽕하다)

\*평소 아무 집이나 잘 들어가는 동동은 프라이 요UNG 마을에서도 검은 고양이네 집 첫 방문에 집 주인 아주머니와 그 집 고양이와 함께 낮잠까지 자버렸다. 쏘포안 생일날에 들른 피우네 마을에서도 해먹이 있는 집에 들어가 잠깐 앉아도 되겠냐고 물음과 동시에 해먹에 누워 휴식을 취해버렸다. 이렇게 어디로든 사라져버리는 그녀에게 소박은 '오른쪽으로 가는지 왼쪽으로 가는지만 알려줘...' 라고 너무 간절하게 말해 동동의 마음을 울렸다고 한다.



이름: 김경미(Mimi, 20)

새로 생긴 별명 : 눔 트나웃, 눔 빠우 (둘 다 음식, 동그랗게 생김 마치 그녀의 얼굴처럼)

\*미미는 '아무거나 주워 먹지 말라'는 조언을 들었지만, 장티푸스에 걸려 흰죽만 먹을 수 있는 상황에 놓여있었다. 흰죽에 질린 미미는 자기 꿈에 수많은 눔트나웃(캄보디아 빵)들이 자기를 둘러싸고 춤을 췄다고 신이나 팀원들에게 말을 했다. 장티푸스 증상에 분명 식욕감퇴가 있었는데...



이름 김태운(Sammot, 20)

새로 생긴 별명 : 김작가, (구)강타 (현)감자 예전에 강타를 닮았었으나 현재는 한날 감자일 뿐

\*어느 날, 팀원들 다같이 심리테스트를 하는 와중에 "사막에서 말이 나에게 오고 있다. 몇 마리인지, 어떤 표정인지,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에 자세하게 묘사하라."고 했더니 태운 팀원이 "매우 흥분한 표정의 말 때가 달려와 나를 둘러싼다."라고 답했는데 알고 보니 지금의 애정관에 관한 심리테스트여서 굉장히 난감해 하며 자리를 떴다.



## 태운

만남이라는 건 정말 멋진 일이다. 인생은 언제나 새로운 만남의 연속이고, 그 만남으로 행복해지고, 때론 상처받기도 하면서 사람이 성장하는 것 같다. 여기서는 새로운 사람들을 거의 매일 만난다.

내가 살면서 외국인들 처음 보는 것은 아니다. 어릴 때부터 어머니가 하시는 일 때문에 외국도 많이 가봤고, 고등학교 때 해외봉사를 몇 번 다녀오면서 나름대로 외국인과의 관계는 별로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건 오만이었고, 현지인들의 관계는 시간이 갈수록 편해지는 게 아니라, 더 어려워지고 있다. 사실 그들은 나를 그렇게 불편하게 느끼지 않고 있는데, 나만 괜히 눈치 보는 것일 수도 있다. 그래서 더 생각이 더 복잡하다.

내가 라온아띠를 하기 전에 만났던 외국인들은 길어봐야 2주 정도 만나는 사람들이었다. 그래서 딱히 그들의 눈치를 보거나 하지 않았다. 하지만 여기 캄보디아의 카리타스 사람들이나, 마을과 농촌 사람들, 하다못해 동네 슈퍼나 대형 마트의 직원들도 앞으로 몇 달이나 더 봐야 하는 사람들이다. 예전에는 외국인을 만나도 내가 한국에서 실제로 만나는 사람들이 내 인간관계의 전부였다면, 이곳 캄보디아에서는 당장 어제, 오늘 만난 사람들과 내일 만날 사람들 모두와 관계를 형성한다. 단지 1, 2주 보는 관광객, 외국인이 아니라, 앞으로 함께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이기에 조심성이 생기는 것일까?

사람이 친해지는데 함께한 시간이 얼마인지는 상관없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앞으로 함께 할 시간은 중요한 것 같기도 하다. 그렇다고 앞으로 안 볼 사람들에게는 함부로 대하는 것은 나쁜 일지만 지금 내가 사는 곳에서 내가 계속 만나야 할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니 까 확실치 마음이 더 쓰인다.

여기에서 2달 간 살아보니 역시 인생은 인간관계가 가장 어렵다는 것을 많이 느낀다. 내가 현지인들을 불편하게 느끼는 것이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잘 모르겠다. 아직 팀원들과도 자주 다투는데, 현지인들과의 관계도 힘들어지면 어쩌나 하는 걱정이 되기도 한다. 하지만 그런 다양한 걱정거리와 고민거리로 인해 내가 여기에서 좀 더 많은 생각을 하게 해주고, 내가 살아갈 이유를 만들어 주는 것 같기도 하다. 앞으로 더 많이 생각하고 고민하면서 남은 나날들을 보낼 것이다.





## 여인

캄보디아에서의 2개월

-서로 양보하기

세 달 전 만해도 낯선 사람들이었던 우리 5명이 함께 살아가면서 서로 양보해야 할 일이 많았다. 하지만 서로 얼마나 양보했는지 말로 하기도 힘들고, 서로 얼마나 노력했는지 알기도 너무 힘들다. 상대가 더 양보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지만, 그 사람도 같은 생각을 할 지도 모른다. 어쩔 수 없이 다른 사람이라는 사실을 새삼 느낀다.

-사랑스러운 캄보디아

캄보디아 사람들 덕분에 마음이 따뜻해지는 한 달이었다. 그들에게는 우리가 낯선 사람들일텐데도 웃으며 맞아주시고 늘 편안하게 있으라고 해주셔서 감사하다. 한동안 벅박쩌드 이란 캄보디아 말이 내 마음에 머물렀었다. 벅박(어렵다)과 찌드(마음)이 모여 슬프다는 뜻이 된다는 게, 그것 또한 사랑스럽다.

-크레센도

캄보디아란 나라가 내 안에서 점점 커지고 있다. 나에게 영어를 쓰는 캄보디아 사람에게 캄보디아 말을 쓰는 게 더 편한 웃긴 상황도 벌어지고 있다. 낯설었던 길들이 이제 익숙한 길들이 되고, 그냥 얼굴만 봐도 기분 좋은 친구들도 만날 수 있다. CDP를 하다보면 활동 마을의 아이들과 청년들, 그냥 이웃 사람들, 그리고 동물들까지 내게 익숙해질 만 할 때쯤 우리는 헤어져야 한다. 전혀 몰랐던 낯선 마을이 조금은 아는 마을, 조금은 익숙해진 마을이라고 느낄 때쯤 활동이 끝나버린다. 아쉽고도 아쉽다. 캄보디아에서 살아가는 150일 중 12일이란 시간도 이렇게 아쉽고 안타까운데 150일이 지나면 어떨지, 이러기 싫지만 벌써부터 마음이 힘들다.

모든 것은 사랑이라는 말이 얼마나 폭력적인지 생각해봤다.

이것도 저것도 다 사랑. 뭔지는 모르겠지만, 어디에나 갖다 붙여도 되는 말 사랑. 나는, 우리는 어쩌면 알지도 보지도 듣지도 못했을 그것 사랑. 어쩌면 어디에도 없어서 어디에나 있는 것 같은 사랑. 답답하다. 사랑하는 척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사랑하는데 그게 정말로 답답하다. 가끔은 동정일까? 동경일까? 라는 질문으로 의심하지만, 또 사랑이다. 그건 사랑이다. 미칠 노릇이다. 사랑이란 무엇일까? 알 수 있는 걸까? 있기는 한 걸까? 사랑은 사랑일까? 그러다 생각을 멈춘다. 생각을 멈추면 느껴지곤 한다. 끝없는 의심이 나를 앞서지만 사랑은 바람처럼, 미소처럼, 마음속 진실처럼 서서히 느껴진다. 사실 나는 헤어질 것을 알고, 잊힐 것을 알기에 사실은 과거의 상처들 때문에 다시 사랑하는 게 너무 두려웠던 것이다. 결국 아무리 발버둥쳐도 그 사실은 더 짙어질 뿐이다. 그렇다. 사랑은 언제나 어디나 그리고 바로 이곳에 실재한다. 참으로 폭력적이다.

여기에서 나는 어느 비 오는 날, 시장으로 걸어가는 길에서 문득 떠오른 이 작은 생각을 끝까지 해본다. 한국에서는 시간이 나보다 앞서고 말이 나보다 앞서고 마음이 나보다 앞서 모두 나의 것이 아닌 느낌이었다. 하지만 지금, 여기에서 나는 내 마음대로 생각했다가 멈추고 내 마음대로 느끼다가 내 마음대로 정의한다. 내 시간을 보내고 내 말을 하고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근데도 그렇게도 내 리듬, 내 걸음으로 천천히 사는 데도 이곳의 시간이 나보다 먼저 간다. 여기는 그런 곳이다. 아무리 사랑해도 더 사랑할 게 남은 곳, 아무리 열심히 해도 후회할 일이 남은 곳. 아무리 보고 있어도 벌써 보고 싶은 곳 그리고 결국엔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해버리는 곳.

또 다시 한국에서처럼 시간이, 말이, 마음이 앞서지만  
지금이건 나의 것이다.





## 권희

### #1 의문

길을 가다 건축 현장에서 벽돌, 시멘트를 나르고 있는 꼬마 아이들을 보았다.  
자기 몸집보다 더 큰 짐을 지고 다니는 그 아이들을 보니 마음이 너무 아팠다.  
내가 정작 그 아이를 도울 수 있는 방법은 없었다.  
나는 이곳에 왜 온 것일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무엇일까.

### #2 빈곤퇴치 캠페인

우리 팀은 빈곤 퇴치 캠페인을 1회성 행사로 끝내지 않고 지속해서 이어 가기로 했다.  
저번 달부터 고민했었던 외국인 프리미엄. 내가 외국인 이기 때문에 차별? 아닌 차별을 받고 있는  
'외국인'이라는 제목의 빈곤을 줄여 보기 위해서.  
수 차례의 홍보를 통해 우리의 취지를 충분히 알리고, '내 이름은 Preap Sovath'이라는 제목으로 첫 발을 내딛었다. 언어의 장벽  
을 넘긴 힘들었지만 주변사람들의 도움으로 내가 원했던, 우리가 캠페인을 하는 주된 목적을 조금이나마 확실히 할 수 있었던 것  
같다. 무엇보다 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캠페인이 좋은 이유는 '우리만'이 아닌 '다 같이'여서이다.  
앞으로도 계속될 빈곤 퇴치 캠페인 우리가 '다 같이'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에 대한 빈곤을 줄여 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 #3 생활

이 곳에서 내가 하는 고민은 딱 하나.  
남들이 보면 웃기지도 않은 고민이겠지만 "밥 뭐 먹지?"이다.  
그 만큼 너무나 생활 하는 것에 있어서는 고민 없이 지내고 있다.

쏟아진 살갓이 2개월이 지나갔다. 처음에는 의사소통이 힘들어 영어로 더듬더듬 이야기 했지만  
이제는 더듬더듬 영어를 쓰는 것 보다 현지어를 더 많이 섞어 쓰며 대화를 하고 있는 내 자신에 놀란다.  
지난 두 달을 되돌아 보면서 내가 이곳에 점점 더 익숙해지고 물들어 가는 모습에 너무 감사하다.  
나도 모르게 '숨아우 짜룩 프라이' (새콤한 생선 국 요리)를 먹고 싶다고 노래를 부르고  
길을 지나가다 식당에서 현지인이 식사를 하고 계시면 입맛을 다시곤 한다.

따끔거리던 햇빛도, 비 오듯 흐르던 땀도,  
덜컹 거리는 튼튼도, 뜬금없이 쏟아지는 빗줄기도  
이젠 하나라도 없으면 뭔가 허전 할 정도다.  
앞으로 3개월 밖에 남지 않았다는 생각에 벌써부터 아쉽다.  
남은 90여일 후회 없게 더 열심히 빠르게 살려고 한다.

## 경미

아, 10월이다.

'벌써'라는 말을 2개월 차에 벌써 쓰고 싶어지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제가 되어버릴 오늘, 또한 곧 과거가 되어버릴 10월이 너무 아쉽다. 시간이 지금에서 조금만 더, 더 느리게 흘러갈 수 있다면, 내가 쓰고 있는 게 '벌써' 두 번째 에세이가 아닌 첫 번째라면.

출국 전 캠프에서 보여주었던 심정 변화 그래프였다, 아무튼 그것은 나에게 잔뜩 겁을 주었다. 마냥 모든 것이 좋았다가, 우울해지고, 회의감이 들다가는 걸국 소진이 온다고, 그래서 9월의 행복한 그 순간들마저도 아주 조금은 두려웠다. 나는 한 명의 낯선 외국인으로서, 그들에게 환영받고 사랑받는 첫 달을 즐기며 마냥 행복해 하는 게 아닌지 말이다.

지금까지 어디에서든, 누구에게든 내 행복을 숨기지 않고 보여주었지만, 그 감정을 조금은 숨겨두고 그 말들도 조금은 아껴야 하는 건 아닐까. 그런 고민도 아주 잠시나마 했었다. 그러나 사랑한다는 말을 아끼기에는 이 사람들, 특히 내 곁의 팀원들은 너무 사랑스럽고 또한 행복하다는 말도 참을 수 없을 만큼 지금의 나는 행복하다.

물론 고민, 걱정, 미련들은 하루에도 수 없이 많다. 때때로는 그저 끝없이 불안하기도 하고, 때때로는 너무나 외로워질 때도 있다. 그러나 더 많이 실수하고, 그래서 눈물 흘리고 싶다. 더 많이 고민하고 그래서 많은 감정들을 있는 그대로 느끼고 싶다. 그제 지금 나의 순간들을 가장 아름답게 보내는 방법인 것만 같아서 순간의 외로움, 지침, 매일의 고민들조차도 이곳에서 살아가는 일을 불행하게 만들지는 않는다...

10월에는 사랑하는 것들이 더욱 많아져 다 세어볼 수도 없게 되었다.

그럼에도 꼭 하나, 말하고 싶은 것은 이곳의 흙이다. 내가 맨발로 다니는 것을 좋아하는 이유는, 동네시장에서 산 3달러짜리 샌들이 일주일 남짓 해 분해된 탓도 있지만 이곳의 땅이 참 부드럽고, 따듯하기 때문이다. 건강한 흙을 건강한 두 발로 밟고 설 수 있다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하기에는 너무 감사한 일이다.

이 흙, 이 땅 위에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집을 짓고 삶을 꾸리고 살아가고 있다. 나는 이 땅 위에서 이 사람들을 만나고 있다. 그 사실만큼은 잊지 않고 싶다.

마을 아이들에게도 킁킁 짓는 센터의 흰등이가 우리에게 사랑살랑 꼬리를 흔드는 걸 보고..

우리가 어느새 이 곳의 한 풍경이 되었구나 생각하며,

안녕.



# Phlieng

## 우리들의 첫 시작, 'phlieng' 9월호 그때 다 하지 못한 이야기들

'처음'이라는 말에 동반하는 설렘, 두려움, 떨림과 같은 것들.  
9월, 많은 것이 처음이었던 깐달팀에게 9월 말의 첫 보고서는 설레고, 또 고민되는 작업 중 하나였다.  
두번째 보고서를 만드는 지금, 우리에게 그것은 어떤 의미로 남았을까. 독자들의 궁금증(일 지도 모르는 이야기)에 답해본다.

Q. 잡지 이름이 'Phlieng'인 이유는?

목차 부분에도 적혀있지만, 'Phlieng'은 캄보디아어로 '비'라는 뜻이에요. 저희가 있는 시기가 우기인지라 비가 참 많이 오는데요, 저희도 이곳에서 비처럼 왔다가는 존재라는 의미에서 이 이름을 제목으로 했습니다.

Q. 굳이 보고서를 예쁘게 만든 이유는?

(뜨끔) 예쁘게 만들려고 한 것까진 아니고...정성을 조금 많이 들인 것은 맞아요. '가독성 있는' 잡지 형식으로 저희들의 이야기가 담기기를 바랐기 때문이에요. 9월 한 달 여러 활동과 경험, 또 생활을 하며 느낀 것들이 많은데 그것들을 좀 더 잘 전달하기를 바랐어요. 물론 보고서는 일차적으로 정보 전달에 충실하면 되지만, 깐달 팀은 보고서 역시 우리들의 활동 중 하나로 생각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이야기를 잘 전달할 수 있는지 고민하게 된 것 같아요.  
만들다 보니 예쁘게 된 것 같습니다^^

Q. 잡지 형식에 반대하는 팀원은 없었는지?

(뜨끔2) 보고서 첫 회의에서 잡지 형식을 반대했던 팀원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접니다-경미-) 팀원들의 의견을 들으며 디자인에 너무 치우치지 않는 한 잡지 형식에 동의하겠다고 말하고 작업을 시작했는데, 만들면서 디자인이나 형식적인 부분 역시 내용을 더 잘 전달할 수 있는 도구가 된다는 걸 깨달았다고 하네요.

Q. 9월 보고서 작업에 대한 아쉬움이 있다면?

저희끼리도 피드백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분명 디자인에 치우치지 말자고 이야기했지만 만드는 과정에서 점점 더 디자인에 욕심을 낸 점, 일찍부터 시작했음에도 작업 시간이 오래 걸린 점 등. 처음이었기에 서툴고, 욕심도 많이 냈던 것 같아요. 끊임없이 피드백하며, 저희의 모습을 더욱 잘 보여드릴 수 있는 보고서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월 보고서에 대한 궁금증, 하고 싶은 이야기, 무엇이든, 언제든, 누구든 보내주세요

# 그리고 남은 이야기



**불신**  
Distrust

## 쏟 쏟아 트라이 반 때

특특을 탈 때, 옷을 살 때, 길거리 음식을 사 먹을 때 매번 실랑이를 해야 한다는 것을 상상해봐라. 당장 옆에 있는 사람이 나보다 싼 가격에 사가고 어제랑 오늘의 가격이 다르고 가격표가 딱 하니 붙어 있는데도 나에게만 다른 가격이 주어지고 흔쾌히 깎아주는 모습에 '이렇게 깎아주는 거면 원래 더 저렴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내내 한다고 상상해봐라. 이것을 단순히 우리가 가진 정신적 빈곤이라고 정의해 버리기엔 너무 많은 상처를 받았다. 아무리 같은 음식을 먹고 같은 옷을 입고 심지어 몇 몇은 같은 피부색이 되어가는데도 우리에게겐 뭔가가 부족하다???



**게시판**  
Message Board

## 게시판 아저씨의 꽃 단장

9월 보고서에서 정중하게 일침을 가했던 게시판 아저씨가 예쁘게 새 단장을 했다. 위치는 더 잘 보이는 식탁 옆으로, 디자인은 하얀색 네트망에 꽃무늬 집게로 마무리했고 얼마 전엔 종이 접기에 빠진 팀원이 예쁜 나비를 접어서 양 끝에 앙증맞게 달아주었다. 그렇다고 갑자기 사용빈도가 높아진 것은 아니지만. 이 때 게시판 아저씨의 한마디 “ 나를 꾸밀 시간에 나를 더 이용하라.”



**그 사람들**  
Bagger

## 아무것도 할 수 없음보다는

캄보디아에서 만나는 많은 사람들 중 우리 마음에 크게 남는 사람들이 있다. 예쁜 눈을 하고 엄마와 함께 우리를 반히 쳐다보는 아이, 길거리에 앉아 밥을 먹는 아이, 한 손엔 팔찌 꾸러미를 들고 한 손으로 잡은 문을 놓지 않는 아이 그리고 그들의 가족. 그런 사람들의 내민 손 옆에서 장을 보고 음식을 먹고 길을 걷는 것은 꽤나 힘이 든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음보다는 할 수만 있다면 1달러라도 주고 싶은 나의 마음 때문에 더 힘이 드는 것이다. '지속가능성'이라는 단어가 그 순간 만큼은 너무 밍다.



**일회용품**  
Disposable Product

## 딩 반 하오이!!(비닐봉지 필요 엄서요!!)

이 달 우리의 주식이라고 해도 무관할 정도로 많이 사먹었던 놈 싸우(고기만두)와 닭다리. 하지만 이 맛난 음식을 먹기 위해 해선 스티로폼용기와 비닐봉지라는 피해갈 수 없는 장벽이 있었다. 이 외에도 미차, 놈 트나웃 같은 포장음식을 몇 번 사먹고 마음이 어려워 지기는 했지만 플라스틱 통 구매 또한 신중하지 않으면 낭비가 될 수 있다고 생각과 (사실은 까먹어서) 계속해서 통 구매를 미루고 있었다. 그러다 우리의 식신들이 계속해서 길거리 음식을 먹을 것 같아 큰 맘먹고 예쁜 플라스틱 통 두 개를 구매했고 이 글을 쓰는 지금까지 딱 한 번 사용했다.



## 초보자에게 주는 조언

엘렌코트

시작하라. 다시 또다시 시작하라.  
모든 것을 한 입씩 물어뜯어 보라.  
또 가끔 도보 여행을 떠나라.  
자신에게 휘파람 부는 법을 가르치라. 거짓말도 배우고  
나이를 먹을수록 사람들은 너 자신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할 것이다. 그 이야기를 만들라.  
들들에게도 말을 걸고  
달빛 아래 바다에서 헤엄도 쳐라  
죽는 법을 배워 두라.  
빛속을 나체로 달려 보라.  
일어나야 할 모든 일은 일어날 것이고  
그 일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줄 것은 아무것도 없다.  
흐르는 물 위에 가만히 누워 있어 보라.  
그리고 아침에는 빵 대신 시를 먹으라.  
완벽주의자가 되려 하지 말고  
경험주의자가 되라.